

레이븐은 전반적으로 혼자 있기를 선호하는 편이었다. 사람들과 부대끼며 친목이랍시고 관심 있지도 않은 대항거리에 대해 시끄럽게 말을 보태며 이리저리 치대고 뒹구는 것은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니었다. 그는 자기 외의 숨소리라곤 찾아볼 수 없이 가끔 바람에 제 망토가 펄럭이는 소리만이 귓가를 스치는, 주변에 생명이라곤 아무도 없을 때의 그 특유의 고요를 사랑했다. 드물게 그런 상태가 발생할 때면 그는 기쁘게 존재하나 침묵할 줄 아는 것들 사이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아자라 메트리온 진토스, 하고 주문을 외우며 명상을 하곤 했다. 그가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 취미 중 하나였다.

그러나 히어로라는 직업 탓에 특하면 타워 전체에 요란하게 울려퍼지는 경보 사이렌이 평화와 침묵의 시간을 지독히 깨트리곤 하는 건 둘째치고도, 슬프게도 타이탄 멤버들의 구성은 제 취미를 즐기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다. 특하면 히어로라면 응당 지켜야 할 규율과 법칙에 대해 설교하며 제 맘에 안 들었다 하면 마구잡이로 장봉을 휘두르는 완벽주의자 리더에, 남의 개인 공간을 함부로 헤집으며 쥐뿔도 안 먹히는 플러팅을 치는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, 그나마 앞의 둘보다 성격은 나은 편이지만 역시 천방지축인 데다가 까부는 데에는 앞의 둘 못지않은 실력을 자랑하는 몸 반쪽이 기계로 이루어진 인간까지. 이 셋은 레이븐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성질을 굽는 데에 전혀 모자람이 없었고 실제로 레이븐이 주로 화를 내는 대부분의 요소는 거의 그 셋 중 하나(혹은 둘, 혹은 셋 다)가 초래한 재앙에 있었으나, 요새 그의 생각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.

그래, 요새 명백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온통 재배열시켜놓고 제 무표정을 사정없이 흐트러뜨리고 창백한 무채색 뺨에 기어코 붉은빛을 채워넣고야 마는 사람은, 따로 있었다.

"레이븐! 일어났구나?"

아직 비몽사몽한 눈으로 달콤한 맛이라곤 없는 곡물 시리얼을 씹어삼키던 레이븐의 등 뒤로 종소리같이 맑은 목소리가 들이닥치자 레이븐은 하마터면 염력으로 들고 있던 손가락을 떨어트릴 뻔했다. 찰나 중심을 잃어버린 손가락은 시리얼 그릇과 부딪혀 덜그럭거렸고 레이븐은 그 여파에 그릇 밖으로 밀려나와버린 시리얼 몇 조각과 우유 방울들을 염력을 사용해 그릇에 원위치시켜야만 했다.

"으음."

대답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내 시선을 그릇으로 돌리고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며 시리얼을 씹기를 반복하는 레이븐은 언제나처럼 제 할 일밖에 관심이 없다는 것같이 보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상시와 딱 그대로였지만 사실 그의 머릿속은 갑작스런 상태변화에 사정없이 요동치고 있었다. 뚫어져라 시리얼 조각이 말라붙은 그릇의 어느 한 부분을 팬스레 노려보다가 결국 차오르는 호기심에 고개를 들어 아까까지만 해도 시야 밖 그저

분홍빛 잔상이었던 그를 향해 눈을 돌렸다.

초점을 그에게 맞추자마자 레이븐이 입술을 앙다물었던 건 언짢아서가 아니었다. 오히려 그 반대의 감정에 가까웠다. 어떻게 매일 보는 얼굴인데도 저렇게 볼 때마다 숨막히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걸까. 반악마는 이 세상의 모든 주술책에 쓰여 있는 모든 흑마법을 꿰고 있었지만 스타파이어의 아름다움만은 그에게 어떤 마법보다도 더 미스터리한 것이었다. 타마란인 전용 마법이라도 있는 게 분명했다. 그도 아니면 왕족 핏줄으로서 타고난 그 무엇이려던가. 광활한 우주는 그 어떤 위대한 명성을 품고 있는 자라도 한갓 미물로 보이게 할 만한 무한한 신비를 담고 있었고 분명 이것도 제가 어찌면 결코 풀지 못할 단 하나의 미제라고 레이븐은 믿었다.

콧노래를 부르며 냉장고를 여는 스타파이어의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뚫어지게 바라봤다. 움직임을 하나하나에마다 연분홍빛 잔상이 은은한 샴푸 향과 맞물리며 희미하게 공기 중에 남았다. 잔상이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면, 영원히 공기 중에 잔존하는 종류의 것이었다면 타이탄 타워는 분홍빛으로 그득하겠지, 왜냐하면 역시 타이탄 멤버들 중 가장 인상적이고 강렬한 흔적을 남기는 것은 지구에 떨어진 한 줄기 별, 스타파이어였으니까. 하늘을 가로지를 때 늘 그만이 검푸른 하늘 위 유독 오래 남는 긴 초록빛 자국을 남기듯이.

어느새 없어진 입맛을 인지하며 손가락을 괜히 우유 속에 휘휘 저었다. 스타파이어가 뒤를 돌아본다면, 그래서 망토 아래서 그를 뚫어져라 관찰하고 있는 제 시선을 본다면 기이하게 여길 것이 뻔했다. 애초에 레이븐은 남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오래 두는 성격이 아니었다.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도 벅찬데 남의 일일까지 굳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기에. 하지만 스타파이어가 영 그답지 않게 울상을 짓거나 시무룩한 표정을 지을 때 레이븐은 가장 침묵을 원하는 시간인 명상 도중에도 괜히 스타 쪽을 흘끔거리다 영 불편해지는 마음에 결국 가부좌 자세를 풀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는 했다. 로빈이나 비스트 보이가 옆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징징했다면 참다못해 제 반악마 기질을 드러내며 질질 짤 거면 다른 데 가서 하라고 했을 터였다.

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란 건가. 레이븐은 조용히 의문했다. 사랑은 어떤 이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다. 레이븐이 최근 자신의 행동을 분석해 본 결과, 아마 그 대상에는 3살 즈음 우주 하나를 파괴시킨 반악마도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었다. 그렇지 않다면-

"레이븐? 너 괜찮아?"

상념에 빠져 시리얼 그릇만을 바라보던 레이븐 앞으로 불쑥 걱정스런 빛을 띠는 연초록색 눈이 등장하자 레이븐은 화들짝 놀랐다. 그와 함께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두근대는 것을 느꼈다. 레이븐은 속으로 제가 늘 망토를 쓰고 다니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다. 제가 머리카락까지 뒤집어쓴 망토 안에서는 레이븐의 시선 정도는 알아챌 수 있을지 몰라도, 지금 확연히 분홍빛으로 달아오른 뺨은 그림자가 가려주었기 때문이다.

"네가 아까부터 먹지는 않고 그릇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길래. 그 그릇에 주술이라도 거는 거야? 아니면 또 비스트 보이 때문에?"

"...무슨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, 별 일 없어. 그냥 좀 생각에 잠겨 있었을 뿐이야."

약간 걱정스런 낯빛을 띤 스타파이어는 레이븐이 간신히 말문을 열어 변명을 하자 금세 눈에 띄게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.

"괜찮은 거지, 그럼? 다행이다!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!"

레이븐을 향해 씨익 웃어 보이는 스타파이어는 천사의 형상 그 자체를 하고 있었다. 악마가 천사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사실이었어. 레이븐은 스타의 미소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했다. 그 와중에 은은하게 퍼지는 샴푸 향은 제 가설에 확신만을 더해줄 뿐이었다.

"...그래."

스타가 가볍게 뒤를 돌아볼 때쯤이야 레이븐은 간신히 대답을 내놓을 수 있었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란 거구나. 레이븐은 절로 멍해지는 머릿속을 간신히 붙잡으며 다사금 생각했다. 그 와중에도 눈은 계속해서 분홍색, 분홍색을 쫓고 있었다, 제 무채색 세상 속 유일하게 아름다운 색깔을 그는 끝내 마지막 머리카락 한 가닥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조차도 놓지 못했다.